

칼빈의 율법 개념과 개혁교회 전통

이 상 훈

(계명대 신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율법과 복음'에 관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칼빈(Calvin)으로 부터가 아니라 루터(Luther)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以信稱義)'에 대한 교리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이들 서로간의 관계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주제는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정통 교리의 보전은 절대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의미와 이들의 상관성에 관한 정확한 신학적 진술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을 연계시켜 언급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한 개념은 항상 복음에 대한 개념과 비교하여 논할 때 그 의미가 생생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루터에 의하면 율법의 주요 기능은 비참함, 사악함, 무지, 미움, 지옥, 심판, 신에 대한 모욕 같은 인간의 죄를 드

러내고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묶어 두는 데 있다. 수도승으로서, 또한 신부로서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성서 이해는 루터로 하여금 주로 저주와 죽이는 자로서의 율법 이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복음은 율법과 그것의 선포를 전제로 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가 가능하다. 복음은 죄인과 깨끗지 못한자가 그리스도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한다. 루터는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번째는 시민의 질서를 세우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율법이 그것이고, 두번째는 고발(나무라는)하는 일을 통해 개인적인 죄를 알리는 기능이다.

루터가 이해한 율법의 범주에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율법의 세번째 기능(usus didacticum)을 첨가한 사람은 멜랑히톤(Melanchton)이었다. 멜랑히톤은 또한 루터가 두번째 범주로 구분했던 회개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을 첫번째 기능으로 구분하면서 이 기능에 대한 거의 완벽한 설명을 기하고 있다.¹⁾ 멜랑히톤을 따라, 그러나 율법의 세번째 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구분한 칼빈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매일 배울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하는 율법의 세번째 사용(기능)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루터와 같이 율법을 부정

1) Edward L. Long jr., *Soteriological Implications of Norm and Context*, ed. by Gene H. Outka(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8) p.266.

적 의미로만 이해하지는 않았다. 율법은 그 이상의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 율법의 주된 기능은 죄인에 대한 정죄나 구속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창조자와 피조물간의 질서있고 조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자연의 기능과 유사하다.

칼빈이 루터보다 율법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은 이들이 율법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²⁾ 칼빈은 율법이 비록 신실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의해 쓰여져 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가르침과 선을 향해 박차를 가하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이유로 루터는 율법이 일차적으로 죄인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한 반면에 칼빈은 율법을 먼저 신자와 관련시켜 생각하고 있다. 이같이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율법의 안내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루터와 또한 루터란(Lutheran) 전통과 비교되는 개혁교회 전통(Reformed Tradition)의 신학 형성에 있어서 일조(一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칼빈은 기독교인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따름으로써 청렴 결백한 삶을 통해 그들의 기독교적 신앙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될 뿐 아니라, 다른 한편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율법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은 청교도와 같은 엄격한 크리스찬 교단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

2)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2), p.223.

었다. 비록 청교도들은 때때로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이들의 윤리적인 삶은 초기 미 대륙의 정착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칼빈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안내 기능으로서 율법에 대한 그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율법 개념이 어떻게 개혁 전통(Reformed Tradition)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주로 개혁교회 전통의 기독교 윤리 형성에 끼친 영향과 이러한 결과로 생겨나는 개혁교회의 교파적 전통들의 면모에 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다.

1. 칼빈에 있어서 율법의 제 1 사용과 제 2 사용 개념

'율법'은 칼빈 신학의 기본적인 주제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강요 제 2권 제 7장의 머리말에서 칼빈은 '율법은 고대인(ancient people)들이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했던 구원의 소망을 고양(高揚)시키기 위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다.³⁾ 즉 율법이 주어진 것은 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예수

3) 칼빈, 기독교 강요, 제 4권 20장 14절

그리스도 없이, 율법은 공허한 것이고 그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다. 전체로서의 율법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졌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재판을 위한 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기능을 따라 율법을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A. 율법의 제 1 사용.

죄를 나타내는 거울로서 율법의 개념은 루터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어 왔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루터와 비슷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율법은 거울과 비슷하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 수 있다. 그때 이것(율법)으로 부터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마침내 이들로 부터 정죄가 다가온다. 마치 거울이 우리 얼굴의 흠집들을 보여 주듯이⁴⁾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한편, 하나님께는 공의로움만이 받아들여진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가르치고, 확신시키며 또한 정죄한다. 율법은 죄인들로 그들의 난처함을 깨닫게하여 그들이 정죄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곧, 율법의 기능은 범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율법이 서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셨고 또한

4) 기독교강요, 제 2권 7장 6절

그들로 오직 공의로움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러한 범위내에서 이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경고하고, 알리며, 깨닫게하여 결국 정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⁵⁾ 불복종한 한 죄인으로서 인간은 생명의 약속에서 배제되고 율법의 저주아래 놓인다.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만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으로만 인간들의 교만과 핑계가 좌절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그 자신의 허영심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으시댈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선택의 기준에 의해 그들을 판단할 때 그들의 연약함을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율법의 난해함을 비교하자마자 그는 그 자신의 허세를 줄이게 된다……. 이처럼 사람은 율법안에서 깨우침을 받고 이로인해 그를 눈멀게 했던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⁶⁾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율법의 제 1 용도는 단지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은 두가지 개념을 지닌다. 그 개념 중의 하나는 완전한 창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상황을 위한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은 고소할 목적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율법을 주셨다. 정죄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정죄하는 것은 죄를 우연히 만남에서 기인한다. 정죄하는 권능은 율

5) 기독교강요, 제 2권 7장 7절

6) 기독교강요, 제 2권 7장 10절

법에 우발적으로 존재한다. 칼빈은 율법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창조자의 뜻 안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율법의 본질을 생각했다. 다위(E.A. Dowey)는 이 '우발적'인 법에 대한 칼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본래 무죄상태에 있어서의 율법에 대한 이해. 둘째, 율법은 본질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속박이나 정죄하는 특징이 율법의 '우발적'인 기능이라는 것(타락이후에는 분리할 수 없지만). 셋째,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사랑을 정의함으로써 온전한(비록 죄의 악들로 인해 얻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제시하는 율법에 대한 찬양.⁷⁾

칼빈은 복종하라고 주어진 율법이 결코 불복종으로 드러나는 실패를 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이 죽음을 초래하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 율법이 모든 인간을 불복종으로 결론지을 수 없을뿐 아니라 또한 죄가 아주 해롭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강조한다. 죄로하여금 '쏘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인 것이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인간 자신의 본성 즉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유로이, 기꺼이, 그리고 확실하게 복종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우리는 자연법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이 그의 원래의 모습을 잃고 타락된 상태에서 그의 의무에 관해 혼동과 어두움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 적합한 법을 나타내시고 또한 명령들을 주신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개념으로서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율법에

7) E. A. Dowey, 전개서, p.223.

대한 이해는 칼빈의 사고 안에서 다음에서 보게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지는 두번째 율법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어 진다.

B. 율법의 제 2 사용

율법의 제 2 기능은 공포심에 의해서만 악한 일을 그치는 자들을 치리하기 위함이다. 이 때 율법은 두려움 때문에 강제적인 힘으로만 사회적으로 만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차근 차근 가르치는 것이다.⁸⁾ 의심이 없이는 그들의 마음은 감동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강요해야만 복종한다.

율법의 두번째 기능은 적어도 두려움으로 율법안에서 무섭게 위협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억지로 시키지 않고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이다.⁹⁾

이러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면서 외부적으로만 그것에 따른다. 이러한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다. 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완전히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 여기에서 율법은 분노를 조절하여 멈추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의 육신의 정욕으로 치달을 것이다.

1) 기독교강요, 제2권 7장 10절
기독교강요, 제2권 7장 10절

두번째 종류의 인간들은 육체적 욕망에 관한 고삐를 느슨하게해서 정의를 따르는 것에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제지하기 위한 속박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직 지배되지 않는 곳에서는 욕망이 때때로 끓어 넘치도록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건망증으로 그것들을 결박시키는 영혼을 가라 앉히지 않는 한 위험이 있다.¹⁰⁾

2. 율법의 제 3 사용 개념

율법의 제 3 사용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주된 기능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신적 순결의 원형을 인간의 삶속에 형성하기 위한 공의를 수행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령께서 살아계시어 이미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 율법의 자리를 찾는다.¹¹⁾ 이러한 배경안에서 율법은 신자들이 매일 그들이 열망하는 하나님의 뜻의 면모를 보다 상세하게 깨달아 그 뜻을 이해하는 일에 확실히 거하도록 돕는다. 여기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어 매일의 삶에서 이로인해 그의 영광을 찬미하고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영적인 사람이 아직 육체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옛 아담의 성품과 육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율법은 그가 자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극할 것이다.¹²⁾ 기

10) 기독교강요, 제2권 7장 11절

11) 기독교강요, 제2권 7장 12절

12) Alec R. Vidler, *Christ's strange work* (London: Lent Book), p. 52

독인들은 그들의 주인의 원칙과 조건을 알기 위하여 율법을 묵상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디까지 율법이 유효한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결국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던가? 구약의 정치법과 의식법에 관한 한 칼빈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한다.¹³⁾ 그러나 도덕법에 관해서 말할 때 상황은 다르다: 율법 그 자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비록 구약의 유대인들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

A. 그리스도는 교사로서의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

율법의 긍정적인 사용에 대한 교훈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율법아래 나시어 율법에 따라 살았고 가르쳤으며 율법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완벽한 순종으로 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여러 부분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지니게 할 목적으로 주어졌다."¹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은혜를 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자이시며 또한 내용이 되신다. 그는 갖가지 종류의 율법에 참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그

13) 구약의 정치법과 의식법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William A. Mueller, *Church and State in Luther and Calvin* (Nashville: Bradman Press, 1954) p.156을 참조할 것.

14) 칼빈, 갈라디아서주해, 3장 19절

리고 그것을 내면화 하였다. 그는 율법에 새로운 내용과 깊이를 더하셨다. 나이트(George A. F. Knight)는 이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율법을 지켰음을 믿었다"고 표현한다.¹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으로 그가 보여준 것은 율법이 응당 받아야 하는 경의와 복종이 그의 오심으로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교정과 훈계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진다고 할 때,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폐기되어지지 않았다.¹⁶⁾ 이같이 그리스도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만한 덕을 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심판과 처벌에 대한 기능을 완성했다. 이로써 율법의 마지막 완성과 율법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받았음을 공언한다(갈 3:13). 그렇다면 그 율법의 저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칼빈은 율법의 두가지 기능사이의 차이를 새롭게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즉 양심을 계도하는 기능과 양심을 정복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전자는 신자들의 삶속에서 유지된다. 하지만 후자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잘못만으

15) George A. F. Knight, *Law and Gospel*(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2) p.77

16) 기독교강요, 제2권 7장 14절

로도 처벌을 받는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엄격한 율법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¹⁷⁾

B. 그리스도는 저주로서의 율법을 폐하신다

칼빈에 의하면 사람이 정죄로 인도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고 또한 이 율법을 근거로해서 심판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주로서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죄 받는 데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법을 폐하셨기 때문이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행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의롭다함'을 가져오셨다. 이 '의롭다함'으로 죄 많은 인간이 성공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그의 죄가 용서함 받고 속박과 처벌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나시었고, 그가 인간으로서 행하시고 고통당하신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과된 이 복종의 일을 완전케하며 완성하는데 기여했다. 예수께서 기꺼이 순종했던 그 율법은 예수의 완전한 행위로 말미암는 덕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의롭다함' 안에서 예수는 "내가 존귀케되며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선포하신다. 이와같은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행

17) 기독교강요, 제2권 7장 15절

위는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정죄와 죄인됨이다. 모든 민족들은 엄격한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난다. 이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된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율법에 대한 만족은 그러한 원리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더이상 율법의 저주아래 놓이지 않고 은혜 아래 처하게 된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고 더 이상 율법의 엄격함 아래 있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율법을 묵상할 수 있다. 어디서든 하나님에 대해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속에서 루터가 그토록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율법과 복음의 적대관계가 무마되고 어느정도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¹⁸⁾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것은 오직 불신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외적인 관점에 의한 관찰의 결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자에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구성원이 되어지는 순간 상

18) Francois Wendell, *Calvin* (New York : Harper and Row Pub, 1963), p.205

황이 뒤바뀐다. 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율법에 환원된다는 어떠한 의미와 관계없이 복음은 율법을 흡수하기 때문이다.¹⁹⁾ 이것이 모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그들은 율법의 위협으로부터 놓임을 얻었다. 율법은 더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 그들 위에 더이상 군림할 수 없다. 곧, 그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신적 의롭다함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영원히 놓이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법이 없지 아니하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고자하는 새로운 동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이제 새로운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새롭게 그들을 값어치 치루고 사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명을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놓이게 된다.²⁰⁾ 이러한 배경으로 율법은 본래의 적극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율법은 신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거룩한 삶 안으로 연결시킨다. 모세가 표현한 것 처럼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하게 하고, 경건과 사랑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완전한 의롭다함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²¹⁾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배경으로 칼빈이 생각

19) 전계서, p.205

20) Stephen H. Tyng, *Law and the Gospel*(Philadelphia : Stavely and McCalla, 1843), p.127

21) E. A. Dowey, 전계서, p.225

했던 기독교인의 자유가 존재한다.

C. 율법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는 기독교인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의 첫번째 부분은 신자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확실히 얻은 결과 저주로서의 율법을 벗어나서 이를 초월하는 상태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인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같이 그리스도는 개개인의 영혼에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평화를 주신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양심에서 맛보는 평화를 통한 기독교인의 자유인 것이다. 이 자유는 양심과 모세의 계명안에서 표현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지킴으로써 자유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들이 비록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소환될 때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들의 양심은 불안해 한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율법의 요구들을 헤아리기 시작해서는 안되고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능히 이루시는 한 분 그리스도의 의에 호소해야 한다.²³⁾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신자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행하여야

22) 전계서, p.235

23) 기독교강요, 제2권 19장 2절

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양심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기능에서의 율법이 더이상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다 이루셨기에 모든 위압적인 힘과 모든 범죄로 인한 저주로 부터 신자들을 해방하신다. 결과 율법은 전에 가졌던 그러한 권위를 신자들에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두번째 관점은 신자들이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외적인 계율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대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독교인은 더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느 때는 이러한 것을 하고 또한 어느 때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자유를 막는 종교적 책임 아래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인에게는 필수적이다. 만일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면 기독교인의 양심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미신적인 관습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바른 형태와 교회의 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의 의식들에 대한 일정한 형태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회를 교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식들이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외적인 의식들을 준수하는 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미신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자신이 경험하는 바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일들에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다. 양심이 구속되고 굴레에 싸이게 되자마자 그들은 끝없는 미로와 미궁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담요나 치마, 손수건 또는 냅킨용으로 아마를 사용해도 되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는 곧 대마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 또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는삼베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요하기 시작한다.²⁴⁾

이러한 자유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인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기독교인에 있어서 양심은 평안함을 가질 수 없고 우상숭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절대자 숭배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교회의 표면적인 예배형식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 발전에 필수조건인 다양한 종교의식은 구원에는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 형식의 관찰에서 우상숭배는 없어야 한다.

동일한 원리가 양심이 몰두해서는 안되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과 음식에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예수그리스도안에서 이미 그러한 기능을 다 수행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인식하는 유일한 예외는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생기는 더 나약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요인인 육체적인 탐심에 대한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칼빈은 기독교인의 자유가 제공하는 목적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고통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어진 용도

24) 기독교강요, 제3권 19장 7절

대로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²⁵⁾

기독교인의 자유의 세번째 관점은 율법의 속박에 의한 강요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후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순종한다는 점이다.²⁶⁾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에서 살 뿐 아니라 행동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에 순종을 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율법의 필연성 때문에 강제되어지는 것이 아닌 율법으로 부터 해방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처럼 자발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확고히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율법의 멍에에 속박된 자들은 노예와 같이 그들의 주인에게 매일의 일을 할당받는다. 그들은 한 일에 대해 걱정하고 또한 그들에게 매일 할당된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서는 주인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부모에 의해 예의 바르고 사려깊게 교육되어진 어린이는 단지 시작만 했거나 절반만 완성되어진 일을 보여주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비록 원한만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복종과 기꺼운 마음이 즐거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그와같은 자녀임에 틀림없으며 우리의 순종이 그의 자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비록 이것이 하찮고 약하고 불완전한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

25) 기독교강요, 제3권 19장 8절

26) 기독교강요, 제3권 19장 4절

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기 때문이다.²⁷⁾

한 배경으로 신자는 더욱 성화되어 간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이며 신자를 다시금 율법과 조화시킨다.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인 것이다.

3. 칼빈의 율법 개념이 개혁교회 전통의 형성에 끼친 영향

A. 개혁교회의 윤리관 형성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칼빈의 주장, 특히 율법의 제 3 사용에 대한 칼빈의 주장은 주로 먼저 개혁교회의 기독교윤리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율법의 제 3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칼빈은 은혜로 인한 구원만큼이나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성화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기독교인은 두가지 측면의 경험을 하게 된다. 즉 하나는 은혜와 믿음에 의한 칭의(의롭게 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화로 인한 삶의 갱신이다. 구원받은 자가 이 둘을 적절히 통일시키는 것이 크리스찬 생활의 기술이다. 리이스(John H. Leith)에 의하면 칼빈은 신학적으로 교회사의 인물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두가지 요소를 잘 조화시킨 사람이다.²⁸⁾ 롱(Edward L. Long Jr)은 이 칼빈주의적 윤리를 보다 주의깊고 조심성있는 방

27) 기독교강요, 제3권 19장 5절

28)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Atlanta : John Knox Press, 1977) p.79

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도들을 인도하는 기능으로서 율법의 제 3 사용을 언급한 칼빈은 개신교 윤리학의 아버지로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되는 구원론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안내자와 방향을 제시하는 율법의 기능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함께하는 준거의 윤리(Ethic of norms with a soteriology of grace)'를 나타내는 특성을 강조하였고 존 낙스(John Knox), 리차드 박스터(Richard Baxter) 그리고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와 같은 이들에 의해 계승, 발전된다.²⁹⁾ 롱은 계속하여 이러한 전통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아래에서의 규범의 윤리(Ethic of rules under a soteriology of works)'와 다르며, 또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함께하는 상황의 윤리(Ethic of context with a soteriology of grace)'와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함께하는 상황의 윤리' 속에서 루터는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수도원적 노력의 엄격한 도덕을 거부한 바 있으며, 193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신-종교개혁의 윤리는 바로 이 루터주의적 요소와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전통들과는 대조적으로 칼빈에 의해 영향받은 개혁주의 전통은 의롭게된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신자들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개혁주의 전통은 종종 은혜로 인한 구원

29) Edward L. Logn Jr, 전계서, p.286

30) 전계서

과 성화의 삶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그 결과 종종 지나친 율법주의로 나타나곤 했는데 이것은 항상 은총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찌기 1541년 11월 20일 칼빈은 제네바에서 의회가 자신이 제출한 교회 조직을 위한 규례들(Ordinances for the body of church)을 채택하기를 설득한다. 이 규례들의 서문에 그 가르침에 대한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즉 신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들을 신중하게 숙고하여야 하며 이 때 어떠한 세속적인 방해물도 이를 위한 진지한 추구를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신적 율례를 엄격히 지켜나가야한다고 적고 있다.³¹⁾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대소 공의회 회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옛 풍습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교리가 그의 순수함 안에서 유지되어야만 하고 교회는 이것을 적절한 질서 안에서 유지토록 해야한다는 점을 숙고했다. 미래의 젊은이는 믿음이 충만하게 교육되어야 하고 병원은 가난한 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은 각양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 이에 대한 의무를 이해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규칙과 생활의 방편이 없는 한 생길 수 없는 것이다.³²⁾

31) Albert Marie Schmidt, *John Calvin and the Calvinistic tradition* (N. Y. : 1960), p.54

32)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LCC 제22권(London : SCM press, 1954), p.58

이 규례에서 칼빈은 춤, 놀이, 노래, 음주등 성서에 반대되는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주의 전통은 종종 지나치게 율법에 대한 자율적 순종을 강조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율법적인 관계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율법주의라는 비난은 그들의 반대자들 특히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행해졌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상황을 직면하는 데 이 때 마주치는 상황은 일반적인 도덕규범을 적용하거나 혹 그러한 잣대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어서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준거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상황에 따르는 강제하에서 행한 행동들에 대해 죄를 암시하려는 신학적인 노력을 비판한다. 이렇듯, 칼빈주의가 율법주의라는 비판을 염두에 두지만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기독교인이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뿐 아니라 동시에 윤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전통의 강점을 희석시킬수는 없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³³⁾

B. 개혁주의 교파 형성에 끼친 영향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 자신이 제네바의 개혁의 와중에 직접 교회의 규례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칼빈주의의 전통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John Knox)와 청교도 전통에서 계속 이어져 갔다. 존 낙스가 처음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1556년) 그의 신학적 견해들은 아마 여전히 본질적으로 쾨빙글리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제네바의 제도를 관

33) Jogn H. Leith, 전개서 p.80에서 지적하는 논점

찰하고 또 칼빈과 접촉함으로써 칼빈주의를 추종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칼빈은 제네바를 완전히 장악했고 이러한 제네바가 존낙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학교'로 보였다.³⁴⁾ 주로 존낙스에 의해 영감되어지고 쓰여진 제 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The First Scottish Confession)는 순수한 열정으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율법의 온전함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며 거룩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 이 법은 신자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며 생명을 줄 수 있고 또한 영원한 복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명하는 과제를 주었거나, 주거나 또한 줄 수 없음을 확인한다.³⁵⁾

존낙스는 칼빈을 따라 모든 기독교인이 율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유로운 영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생활에 안내자로서의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철저한

34) John T. Mcne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N. Y. :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295

35) John Knox,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Religion in Scotland*(London : Fleming H. Revell Co., 1905) p.351. 352

경건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은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법에 깊이 헌신하는 면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영국에서 교회의 갱신과 그들의 비 성서적 전통을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주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회 정치와 예식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영향을 끼쳤던 청교도들은 또한 미국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엄격한 칼빈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이들 초기 미국 정착민들은 그들의 적대자들이었던 아르메니안계통의 성공회 교도들의 삶의 태도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개혁주의 전통'이 명확하게 어느 전통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들 청교도전통은 미국에서 분명한 '개혁주의 전통'의 대표적인 존재로 인정되어 왔다. 이처럼 17세기를 배경으로 성장되어온 청교도 전통은 문화 형성의 지속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소위 대각성운동이라고 불리웠던 18세기의 문화적 산물이 끼치는 영향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마당에서 마스덴(George M. Marsden)은 청교도 전통을 경건주의 전통의 부류에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8세기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헌신하는 일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운동의 폭 넓은 확산을 위한 세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대각성운동은 그 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더 넓은 의미의 각성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다른 개신교 세계에 널리 퍼져나갔던 일련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있었던 감리

교회의 발생도 크게 보면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 운동은 개혁교회 전통에서 있었던 경건주의자들의 신앙부흥운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³⁶⁾

이 개혁주의 전통의 경건주의는 오늘날 주로 복음주의 계통의 운동들에 의해 지속, 발전되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음주의 전통에서 '개혁주의 전통'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복음주의적 경건에 대한 가장 성서적이며 동시에 건강한 표현양식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맺는 말

기독교강요 초판이었던 1536년 판에 칼빈은 이미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 규범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복종, 혹은 순종이 칼빈의 신학의 전면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이로 인한 귀결로서 기독교 신앙의 범적인 이해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 자신이 설명하는 자신의 회심경험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 볼 수 있다. 그의 회심에 있어서 주요 동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였다. 성서의 권위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며 섭리자이시다. 이 분에게 마땅한 존경

36) Davie F. Wells,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Michigan,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p.3~4

과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으뜸되는 삶의 본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의 규범의 윤리학 (Ethics of Norms)는 비록 그것이 율법주의적 경향성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의 의무를 매일의 삶에서 깨우쳐주고 주어진 책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